"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이번 주는 실행위원회 정기 모임입니다. 각 실행위원회 별로 준비해 주십시오.
- 다음 주 오후 2시부터 공동체 운영위원회 47차 정기 회의가 있습니다.
- 다음 주는 기독교교육주일입니다. 기독교교육주간 새벽기도를 위해서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체학교 여행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꾸러기학교 제주도 졸업여행 : 10월 15일(화)~18일(금)
  어린이학교 안동 도보여행 : 10월 14일(월)~16일(수)
  멋쟁이학교 테마여행 : 10월 14일(월)~17일(목)
- 10월 17일(목)에 경기도 대안학교연합회 교장단 30여명이 10월 정례회의 모임으로 방문하십니다.
- 성서일기 진도가 미가서에서 하박국, 스바냐, 학개로 바뀝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병우 · 정영옥 집사 가정 (김성기 집사 결혼기념)

강단을 꽃으로 : 조이서 (생일 감사)
익명 (생일 감사)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41 호
2024년 10월 13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랑방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즐거움이 넘치는 사랑방 연합 선교 바자회

지난 한글날에 매년 열리는 공동체학교 연합 선교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꾸러기 어린이 멋쟁이 학교가 협력하여 준비하는 연합 행사로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장입니다.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바자회'는 많이 알려져서 익숙해진 단어입니다. 바자회라고 하면 보통 공공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벌이는 자선 장터의 성격이 강하지요.

그런데 바자회는 원래 bazaar라는 페르시아어에서 유래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의 뜻은 '시장, 시장거리'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고대 페르시아는 중국과 함께 실크로드의 양축을 담당한 나라입니다. 실크로드는 단순히 물건이 왕래하는 장삿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동서양의 물건들뿐만 아니라 사람과 문명, 문화가 교류하던 통로였습니다. 비단과 향신료같은 물품 그렇기 때문에 비단길로 불리면서 동서 문명의 교류를 상징이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신기한 물건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전통적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인 bazaar가 자연스럽게 문화의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들을 중심으로 타국의 문화가, 특히 동서양의 문화가 함께 만나고 교류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바자회라는 단어는 자선 장터의 의미로 쓰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물건을 판매하며 자금을 모으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라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더해진 것이지요.

이번 바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든 나눔과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공동체학교인 꾸러기, 어린이, 멋쟁이학교에 속한 교사, 학생, 학부모가 중심이 되고 생활공동체 식구들과 예배공동체 식구들 그리고 그곳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들이 바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바자회를 위해서 물건을 기쁜 마음으로 내어주신 많은 분들과 음식 준비해 주신 학부모님들 포장상품을 준비해주신 생활공동체와 베다니 하늘주방, 루디아 공방, 그리고 멋쟁이 학생들이 진행하는 각각의 코너들과 설치와 설비를 맡아주신 나사렛 목공소와 곳곳에서 각종 일들을 진두지휘하신 각 학교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여러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함께 합쳐져서 전체 수고의 합을 뛰어넘는 즐거운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한글날에 열려서 그런지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무림리 동네 주민들과 학교 연계된 지인들, 그리고 학교 졸업생들과 그 가족들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끼리 인사를 나누고, 각종 코너를 함께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바자회의 수익금은 세계 갈등과 분쟁 지역에서 사역하는 개척자들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특히 로힝야 난민들을 돕는 일에 사용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사장에서는 개척자들에서 오신 두 분이 바자회에 참여하셔서 로힝야 난민들의 현 상황을 소개하는 코너를 직접 운영하며, 현실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단순한 구매를 넘어서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는 의미를 더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방 연합 선교바자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이며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번 연합 바자회는 정말 다양한 손길들이 모여서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낸 즐거움과 화합의 장이었으며, 그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베푸는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장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대단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소박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삶이 진정으로 누려지는 그런 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재훈 목사

한주간의 말씀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
<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

〈 수요기도회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516, 545 / 412
기도 :
성경 : 미가서 4장
제목 : 주님의 길, 평화

1-2절 모든 민족이 주님의 길을 따를 것이다.
해석: 이스라엘 심판의 목적은 모든 민족이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 주님의 길을 최우선에 두어 우선시 하자.

3-5절 하나님께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다.
해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평화다.
적용: 평화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6-13 하나님께서 한데 모으시는 이유
해석: 겉모습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적용: 주어진 하나님의 일, 확장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해외유학을 마치고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6년간의 해외 유학 생활을, 대학을 졸업함으로,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교회는 여전히 그대로 평안하고 그리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기다려준 교회에 참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3년, 스위스에서 3년을 보내며 많은 배움을 얻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세월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해외 유학을 가기로 결정한 것이 마치 어제 같은데, 시간이 흘러 벌써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왔다는 사실이 참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6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기에 오랜 기간 동안 멀리서도 제 건강과 학업을 위해 기도해주신 교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저는 용기와 힘을 얻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이 순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유학생활을 하고 돌아왔지만, 이제는 학업이 아니라 군복무를 하며 또 다른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안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저에게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일찍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언제나처럼 곁에서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 긴 시간도 역시 잘 흘러가리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저에게 찾아오는 이 시간이 힘들고 지치는 시간이기보다는 양분이 될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젊은이사랑방 박예찬 청년

주일공동예배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오전11시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미가서 4 : 2	인도자
*예배의 찬송	39	다함께
*기원의 기도		인도자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참회의 기도		
*용서의 말씀	로마서 3 : 23-24	인도자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94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마가복음 10 : 17-31	설교자
성가대 찬양	191	미리내사랑방
설교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성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436	다함께
*봉헌기도		인도자
*영광찬송	438(1)	다함께
*위탁의 말씀		설교자
*강복기도		설교자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이충환 최연우 / 봉헌위원 : 박영선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재물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자청년의 질문.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하였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의 관심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며,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신하는 청년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청년은 슬퍼하며 근심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는 현실의 안락함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명령.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는 타협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판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을 가서 팔아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태일 목사 / 기도 : 나송주 집사

꾸러기학교

오랜만에 학교가 북적북적 합니다. 꾸러기 친구 5명이 다 모여서 신나게 놀아서 그렇습니다. 아직 검사 전인 지음이를 위해 다 같이 뛰지 않고 놀기로 했는데 쉽지 않지만 모두 열심히 노력합니다. 오랜만에 장애물 코스 만들기를 하며 점점 어려운 코스를 만들면서 통과하는 친구들은 너무 신나서 목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꾸러기들의 재밌는 놀이를 찾아가는 탐구생활은 끝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음이가 검사 결과가 좋아져 이젠 뛰어 놀 수 있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준비하며, 기대한 사랑방공동체학교 연합선교바자회가 지난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이날은 선생님들이 물건을 판매하셔서 꾸러기들은 부모님과 함께 와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자회 동안 꾸러기들은 매우 바빴습니다. 좋은 장난감도 사야하고, 맛있는 음식도 사야하고, 산 장난감으로 같이 놀기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먹거리와 볼거리, 놀거리가 풍성한 하루 였습니다.

금요일에 앤서니브라운님의 동화책 전시를 보러 갔습니다. 꾸러기들이 사랑하는 책들과 그 책을 만든 작가님의 생각을 볼 수 있었고, 또 다양한 체험이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고대하고 기대하던 바자회가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는 바자회 준비로 벼룩시장 물건을 고르고, 고구마 줄기를 벗기고, 선교에 대한 비젼을 나누었는데 드디어 징~~ 바자회 개막을 알리는 목사님의 선포와 개척자를 외치는 소리와 함께 왁자지껄한 바자회가 개장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기특하게도 선생님들께 커피도 사다 주고 은혜 갚는 까치처럼 여러 어른들께 음료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런 어린이들이 눈에 띄고 순간 흐뭇함이 가슴을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바자회의 꽃 중의 꽃은 어린이 입장에서는 어린이 벼룩시장입니다.^^ 아끼던 물건을 들고와 팔고 모은 돈이 무려 3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라니.. 금요일에는 어린이에게 액수를 공개하며 칭찬과 격려의 시간을 가졌고 점심시간에는 다함께 노력해서 만든 고구마줄기김치를 맛보며 즐거운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바자회가 무르익을 무렵 어린이의 젬배, 카온 공연은 지쳐가는 사람들에게 힘과 흥을 다시 불러오기에 충분한 무대였고 박수 갈채가 아깝지 않을 만큼 멋진 연주였습니다. 바자회가 재미있는 놀이를 휩쓸어 선교에 이르기까지 함께한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과 공동체 많은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다음주는 도보여행을 갑니다. 기도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단풍이 서서히 물들었던 주간이었습니다. 환절기의 영향인지 기침소리가 잦아지기도 했지만, 바깥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계절이 얼마 안 남았다는 위기감으로 축구 활동은 열기를 더했습니다. 수요일에는 로힝야족 등 평화운동을 하고 있는 <개척자들>을 지원하는 사랑방공동체학교 선교바자회가 열렸습니다. 화창한 날씨와 맛있는 음식, 다종다양한 코너와 퍼포먼스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멋쟁이학교에서는 주로 물건 배치와 세팅, 사진찍기나 타투 스티커 등 각종 놀이코너와 멋진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당일은 한글날이기도 해서, 저녁에는 한글날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기도 했답니다.

목요일에는 5학년이 해외문화체험학습 여행을 소개하는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낯선 장소들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하고, 여러 성장을 거쳤음이 느껴졌습니다. 보고회가 끝나고 5학년이 멋쟁이들을 생각하며 준비해온 선물들도 하나씩 받는 즐거움까지 누렸답니다.

다음 주는 테마여행으로 보냅니다.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을 찾아 대화하기 위해, 많이 방문하는 장소들을 찾아가볼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감기 등으로 앓고 있는 멋쟁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코스모스 길을 걷다

요즈음은 틈만 나면 꽃 나들이다.

꽃을 주제로 각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많아 갈 곳이 많다.

아내와 나는 꽃과 정원에 관심이 많아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달만해도 양주의 천일홍 축제, 남양주에서 개최한 다산정원문화박람회를 다녀왔고, 바로 어제(금요일)는 구리한강공원에서 열린 코스모스 축제에 다녀왔다. 평일이라 한가롭게 다녀올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 넓은 주차장을 한동안 배회하고서야 주차를 할 수 있었고, 광장을 가득 채운 공연 소리와 먹거리, 체험장 부스, 각종 편의 시설을 발 빠르게 빠져나오고서야 기대하던 코스모스 길을 걸을 수 있었다.

국화와 함께 가을을 대표하는 코스모스는 가녀린 줄기를 하늘 하늘거리며 여러 가지 색채를 뽐내면서 많은 사람의 시선을 즐기고 있는 듯 보였고,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기에 바빴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냥 지나치는 것은 꽃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은가. 나도 질세라 핸드폰을 꺼내 드니 아내가 함께 찍자고 하며 옆에서 사진 찍는 사람에게 찍어 달라 부탁한다. 싫은 표정 없이 성심껏 근거리 원거리 오고 가며 다각도로 촬영을 해 주시니 미안하고도 고맙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진을 찍어주고, 감탄도 하고 감사도 하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덤이다.

연애할 때처럼 아내와 함께 손잡고 꽃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하다 보면 마음엔 평안함이 깃들고, 여유로움은 더해지고, 그렇게 또 추억은 쌓여진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좋은 곳을 함께 거닐 수 있는 것도 큰 복일 것이다.

"꽃은 아름답지만 잘난 척하지도 않고, 앞으로 나서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저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당신은 꽃 중의 꽃이다."

그루터기사랑방 정낙귀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다운 전도사
찬 송 : 430장, 453장
성 경 : 로마서 12장 15절
말 씀 : 복음의 빚을 갚는 선교적인 삶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는 세계 각국을 위해>
미국 플로리다 주는 100년만에 강력한 허리케인이 상륙하여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생기고 네팔은 54년만의 홍수로 수백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생겼다. 자연재해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개척자들 공동체>
국가나 민간단체가 지원할 수 없는 가난과 분쟁 지역에 들어가 그들을 돕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개척자공동체. 현재 방글라데시에 현지사역자와 함께 난민촌에서 로힝야족을 돕고 있습니다. 안전과 필요를 채우시길 위해 기도합시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1) 공동체학교 선교 바자회가 은혜가운데 잘 마무리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시다.
2) 9월과 10월, 결혼하는 새 가정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 생활공동체 소식 >

사랑방공동체 학교 연합 선교바자회 준비로 공동식구들은 한 주간 동안 각처에서 여러 판매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나사렛 목공소에서는 도마를 루디아 공방에서는 비누를 비롯하여 수정과며 각종 반찬까지 눈 코 뜰새 없이 작업을 했습니다. 바자회 당일에 판매까지 하면서 선교에 도움이 되고자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공동체 식구들 모두의 힘이 모아져 성황리에 마친 바자회는 선교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정 뿐 아니라 복음과 사랑이 함께 전해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장영미 전도사>